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었다

담당 형사 “통화했다” 주장하며 사건 종결 처리
허위보고 논란 증폭… 실종자는 생활반응 전무
경찰, 실종 3개월 뒤 집중 수색… 늑장 대응 비판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보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37)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실종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통화를 했으며 사건을 종결처리했으나, A경장과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15분쯤 주거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한림항 일대에서 꺼진 뒤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의 동거인은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접수한 A경장은 2시간30여 분만인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신고인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달한 것

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보고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씨는 최초 실종 신고 이후로 현재까지 3개월째 금융, 통신, 항공권과 배편의 이동기록 등 생활반응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은 뒤늦게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임건해 통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집중 수색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종 3개월 만에 집중 수색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였다. 집중 수색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수색에는 경찰청과 서부경찰서,

해양경찰, 자치경찰단, 바다환경지킴이 등 159명이 참여했다. 또 헬기와 드론, 체취 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연안 구조정 등이 투입됐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 인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농로와 추정 경로, 펜션, 공·폐가 등을 수색할 계획이다.

김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실종자의 주거지부터 해상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가용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을 전개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제주해양경찰이 20일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서부경찰서·해양경찰·자치경찰단·바다환경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헬기·드론·체취 증거견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줄줄이 벌금형

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된 5명 선고
특정후보 인쇄물 도내 곳곳 살포 30대들도 ‘벌금’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만원

을, 40대 남성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대선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데 이어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기간

인 지난해 5월 29일 사전투표를 했으나 본투표 당일인 6월 3일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D씨와 30대 남성 E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4일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도내 15곳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3매를 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쇄물을 무차별적으로 접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D씨의 경우는 직접 인쇄물을 제작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벌초 중 사고 연평균 36건… 올해도 주의보

예초기 의한 사고손상 많아

8월 말~9월 사이 사고 위험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 풍습인 ‘모듬벌초’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제주에서 벌초 작업 중 연평균 3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 32건, 2022년 33건, 2023년 38건, 2024년 32건, 2025년 43건 등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6명이 벌초 중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1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예초기에 의한 사고손상 환자가 총 63명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밖에 절벽, 낙상·부딪힘·온열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추석 전 벌초가 집중되는 8월 말부터 9월 사이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 사고가 집중됐다. 또 예초기 등 장비 사용이 많은 40~60대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모듬벌초 기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도민 안전관리에 나선다.

벌초 작업 시에는 작업 목적에 맞는 예초기 칼날 사용, 작업 전 돌·나뭇가지 등 위험요소 제거, 예초기 작업 시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진행, 작업자 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장비를 완전히 정지한 뒤 이물질 제거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강조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모듬벌초 기간에는 예초기와 농기구 사용이 늘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특히 폭염 속에서는 무리한 작업을 피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시범사업 심야 주유소 2곳 추가 모집

읍·면 심야 주유소 5곳 이상 추진… 현재 3곳 선정

오는 31일까지 공모 진행 후 9월부터 시범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심야 주유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추가 공모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까지 읍·면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4개소 가운데 3개소를 선정했다.

도는 내달부터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읍·면지역 5개소 이상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심야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보다 선정 주유소가 2개소 부족해 도는 책정된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앞서 특정 지역에 선정 주유소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애월읍과 조천읍, 구좌읍 소재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주유소에는 오후 8시 이후 심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가 지원된다.

인건비는 근무자의 업무와 운영 시간에 따라 시간당 1인 2만3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하며, 운영시간 안배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는 업소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추가 공모를 통해 참여 주유소를 최종 선정할 뒤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심야 주유소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들**→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